



◇ 15일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왼쪽)을 예방해 환담하는 고산스님. 16일 통도사 방문에서는 방장 원하스님이 출타해 만나지 못했다.

■ 고산총무원장, 방장-원로스님 차례로 예방

“종단통합·교육개혁등 조인 수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15일부터 20일까지 5대총림 방장스님들과 원로스님들을 차례로 예방하며 승가회합과 종단안정을 위한 조인을 수렴했다. 이번 방문에서 고산스님은 행자교육기간의 연장과 전통 승가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의지를 중점적으로 밝혔다. 방장과 원로스님들은 고산스님에게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한결같이 당부했다.

▲15일 오전 해인사에 도착, 방장 법전스님과 원로의장 해암스님을 차례로 예방한 고산스님은 “행자 교육기간을 늘리고 승가의 전통 교육체계를 개편해 교육 개혁의 틀을 다지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전스님과 해암스님은 “고산스님이 총무원장이 된 이상 종단은 빈틈없이 발전의 기틀을 잘 것을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오후 김천 직지사 방문한 고산스님은 명예원로의원 관용스님을 예방했다. ▲16일 오전 통도사에 도착한 고산

스님은 방장 원하스님이 출타한 가운데 부방장 청하스님과 주지 월파스님을 예방해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통도사행에 주변의 반대도 많았다”고 말했다. 부방장 청하스님은 “경솔론에 밝은 고산스님이 종단의 일을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송광사에 도착한 고산스님은 삼일암에서 접견한 방장 보성스님을 “민 길을 다니며 종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으며 고산스님은 승가교육 체계의 개혁의지를 밝혔다.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을 방문해 백양사로 동행한 고산스님은 방장 서용스님에게도 교육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20일 오전 수덕사에 도착해 방장 원담스님에게 “종단을 잘 이끌어 가 달라”는 당부 받고 원로의원 응담스님을 예방했다. 응담스님도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가족의 관계를 생각케하는 사건이 연일 일어났다.

수연(18)양은 후진해오는 병동트럭에 뚫려 동생을 구하고 숨졌다.

자모씨는 술해 위해 새벽2시에 들 어온 딸(여고생)의 뺨을 때렸다. 딸은 아버지를 112에 신고했다.

아버지와 누나들 일가족 6명이 공 모해 씨발이로 남아 입적시킨 아들(초등학교)을 목졸라

죽여 암매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정스님은 어느 여

성지 1월호

에서 이런말

을 했다.

“누군가를 보살펴야 해요. 또 무

엇인가를 보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란 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

수한 관계속에 산다고요. 누군가를

보살피면 가슴이 따뜻해 집니다. 그

리고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게

될거예요. 그 대상을 면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집안에서

친구사이에서 이웃에서 찾아 보십시

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몇생을

쌍은 인연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

데 사소한 기분이나 정서적인 문제

로 마음을 닫고 산다면 그것은 가정

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매일 한집에서 자고 먹고 생활하

는 가족은 관계의 기본단위다.

가족끼리의 관계확대

가 직장이고 사회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

회에 따뜻함이 감동케

하면 어떤

게 해야 할

까.

다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면 사

람의 틀레에 어떤 온기가 생깁니다.

오늘을 사는다는 정신적·육체적 사

랑도 아닌 그저 지켜봐 주고 보살피

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연양의 동생사랑은 사람

들의 가슴을 적셨나 보다.

목어

가족

“한자 한자 전항목 감수했어요”

인터뷰

‘가산불교대사람’ 펴내는 지관스님



- 1932년 경북 영일 생
-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은 은사로 득도
- 1957년 해인사 대교과 졸업
- 1968년 동국학원 이사
- 1976년 동국대 철학박사
- 1986년 동국대 제11대 총장역임
- 현 동국대 석학과 교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 저서 <승려경각해> <한국불교의 경전연구>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고려·조선편 외 다수

“불교대사전의 편찬이 불교연구와 그 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가는 불교중흥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미려하나마 부처님 말씀을 최대한 결집했습니다.”

1982년 음력 5월, 삼각산 경국사 극락보전에서 삼천배 기도과 함께 불교대사전 편찬을 발원한지 18년. 발원의 성과물인 <가산불교대사람(伽山佛敎大辭林)> 첫 권을 받아든 지관스님(68·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일 뿐”이라는 말로 감회를 대신했다.

다양한 술어를 최대한 포함시킨다는 것을 발간 원칙으로 삼아 ‘기’ 항목 1·2권이 나오기까지 18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만큼 ‘완벽’을 지향한 끈기 때문일까. <가산불교대사람>은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 일반불교 및 한국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관스님은 명칭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辭典)’의 개념을 넘어 ‘사림(辭林)’으로 새롭게 칭한 이유를 “불교술어를 최대한 다양하게 수록, 백과사전처럼 ‘어휘의 숲’을 이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교문화, 사상 전반에 대한 보편적

삼장전승·불교중흥 불사...자동차·휴가 반납 항목별 유기적 연결... ‘해석적 관점’ 용어풀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원칙을 두었습니다. 민족 주체성을 자각하면서 세계를 향한 보편적 시각을 갖고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요. 같은 불교 술어일지라도 최대한 한국불교 찬술 문헌에서 그 용례를 찾아 병기하고, 근본불교 술어는 물론 불교권 국가에서 특별하게 변형되어 토착화되거나 창출된 술어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료도 놓치지 않았으며, 마감 교정예 들어간 중재라도 해외에서 새로운 사전이 나왔다는 연락이 오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입수, 새 항목 추가하기를 3~4회, 국내·외에서 발간된 최신 자료는 모두 입수하여 보완했다. “각 항목에 대한 전거를 밝히면서 관련 용례를 제시하다 보니 50회나 관련 내용을 찾아가도록 된 항목도 있더군요. 한 항목에 대한 한 가지 정의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항목을 유기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수지침은 불교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개척한 것.

지관스님은 해인사 강주와 동국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해 온 만큼 불교문화사건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불교의 중흥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론 ‘삼장’을 바르게 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장을 제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그 술어 하나하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지요. 승가의 후학들에게는 물론, 점점 지변이 확대되고 있는 불교 연구자들에게 불교 술어를 정리하는 일은 더없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70년 중반쯤 해인사 강주로 있으면서 일본의 <망월불교대사전>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불교연구의 근간이 될만한 불교종합사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지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운허(耘虛)스님께서 일본 불교사전을 번역하고 한국불교의 중요술어를 추가하여 1961년 <불교사전> 1권을 발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초자료 조사기간이었던 10년을 제외하면 <가산불교대사람>은 자료입력에서 편집, 교정까지 외부의 도움을 받지않고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모두 이뤄냈다. 지관스님과 사전편수실 기획실장 현원스님을 주축으로 편찬실 책임연구원 김영욱 박사, 각 분과 연구원 20여명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사전편찬’을 화두(話頭)로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어느 선방수좌 못지않게 용맹정진을 한 것.

현원스님은 “지관스님은 누구보다 먼저 가산불교문화원에 출근하여 새벽 2~3시까지 연구에 몰두하시곤 합니다. 최종 원고를 지관스님께 가져다 드리면 그

걸 한장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까지 3~4번씩 읽고 또 읽으며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십니다. 전항목 60%에 가까운 한문운독을 직접 맡아 하면서 또 사전 원고 전체를 몇번씩 감수하느라 시력도 많이 나빠지셨다”고 전한다.

기초자료조사를 마치고 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개원과 함께 본격적 편수작업이 시작된 후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마련. 빠른 시일안에 투자(?)의 성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지속적인 지원을 이곳저곳에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자료수집과 연구에 관한한 ‘무한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관스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찾은 방법은 바로 ‘절약’. 동국대 재직 당시 받는 월급 등 모든 수입을 사전편수실 통장에 자동이체시켰다. 승용차를 처분하고 어디를 갈 적이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여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98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사할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자 당시 스님이 거쳐하고 있던 경국사에서 차를 내줬다. 그 중형차를 타고 가 주차장에 하차하자 대형차들을 타고 온 후배스님들이 얼굴을 붉히며 서로 차를 빼느라 난리였다는 것.

“재정 때문에 난관에 부딪힐 때가 몇 번 있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그때마다 도움을 준 후원자들이 나타났

불교대사람편찬발원문

일심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나와 무상심심 미묘하온 광만법장과 전법하는 스님들께 원하옵나니 가요하사 재소원을 살피주소서 구법위해 진솔제양 당대불비로 신라백제 고려의 스님들이여! 죽을조차 무릅쓰고 고국을 떠나 국민위환 그마음은 비할데없네! 백명중에 돌아온이 열명안되니 후인들이 전안난을 어찌알리요! 일념으로 천축향해 가는길에는 황사비가 가득하여 눈물뚝뚝! 가는길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험한곳엔 빛줄잡고 건너갔으니 후인들은 이런고난 아는이없어 개중에는 용이하게 경을대하네! 범행여가 합천어휘 알기어려워 학인들은 이부분에 골치를 앓다 제가이정 해결코자 생각했으나 이런저런 잡원일로 없애었다가! 입술년에 이르러서 비로소집필 한국불교 대사전을 편찬하노니 천용팔부 호법신장 옹호하옵고 사방삼세 부처님은 증명하소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장애가없고 문수보살 대지혜의 가피를입어 어휘마다 부처님의 본의부합 하루속히 완간하여 고불하리다 이사전을 편찬하온 공덕으로써 한국불교 선양함에 도움이되고 감로수를 마신이는 모두가이억 일체중생 빠짐없이 해탈하소서 저자신이 임종할때 병고가고도 떠날때를 미리알아 기뻐하며 이들로 향사세계 두루하여서 미진함이 지나도록 도생하리다 내외이름 듣는이는 발심올하고 저의모양 보는자는 낙을얻으며 한중생도 알아들어 성불못하면 영원토록 정각도를 취치않으리! 사전불사 뜻깊은아 통참한자중 집필자나 후원자나 열려한사람 모두 함께 열반상에 높이앉아서 중생위해 열반가를 제창하리다

불기 2525(1982) 음력 5월 11일 삼각산 경국사에서 비구 석지관 삼천배

습니다. <가산불교대사람>은 그 분들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된 것이지요.”

스님은 이 사전을 기초로 공부하여 삼장을 터득하고 삼학에 정통한 후학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망월” 사전이나 ‘나카무라’ 사전도 완간까지 10년 이상씩 걸렸지요. 후학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를 이어 완간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산불교대사람>도 완간까지 제가 회합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큰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가산불교대사람>이 완간될 수 있도록 종단을 비롯 한국불교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800 중앙승가대 동문 스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대화합의 장을 이루겠습니다.

저희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회장 효종스님의 사의표명으로 본 회칙 13조 1항에 의거 총동문회 운영위원 41명중 32명의 참석하에 만장일치 추대로 원종스님 (본교 5회졸업 / 강화 보문사 주지)을 불기 2543년 1월 14일 새 동문회장으로 추대 결의하였음을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고하는 바입니다.

사회와 종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안으로 화합과 정진의 새장을 열어나갈 것을 부처님전에 서원을 세웁니다.

신임 회장단 및 임원 구성

- 회 장: 원 종 (5회 졸업)
- 수석부회장: 진 욱 (6회 졸업) 외 4명
- 사무처장: 선 법 (9회 졸업)
- 기획실장: 정 인 (8회 졸업)
- 출판국장: 정 산 (9회 졸업)
- 재정국장: 종 식 (9회 졸업)
- 홍보국장: 도 관 (10회 졸업)
- 기획국장: 종 호 (13회 졸업)
- 홍보차장: 동 출 (13회 졸업)
- 서 기: 태 능 (15회 졸업)
- 기획차장: 종 석 (16회 졸업)

각 기수 회장 부회장 일동

\*본교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불기 2543년 1월 21일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임원 일동